

비루한 가난과 빈곤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에...

지금까지 남조선의 보수 《정권》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사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은 미국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 남조선에서 대규모 집회 진행 —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 학생학살사건 20년을 맞으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호순미선 20주기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11일 서울에서 《호순미선 20주기 조총련계승 6.11평화대회》를 열고 남조선미국행정협정(SOFA)개정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및 시설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에게 환경, 보건, 사법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집회에 앞서 민주로총의 반미자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로총은 《호순, 미선의 죽음에 분노했던 민주로총은 20년이 지난 오늘 새로운 각오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호순미선(정권)의 미국중심동맹정책, 군사력증강정책, 《대북적대정책》을 막아내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를 청산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고 적힌 구호판들을 들고 반미구호들을 외쳤다.

미리감치 봐두어라

김태룡

통개도 제 집에선 으르렁대더니 갖지 않은 허세 부려대는 그 추태... 《호순미선》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만장안에서 우쭐떨거리는 그 골 그야말로 철딱서니없는 망나니로다... 《호순미선》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다르게 침방을 뒹기지 말아 무모하게 날뛰는 지랄발광은 재기를 부리는덴 제격일지 몰라도... 《호순미선》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몸값을 올려보려는 역겨운 놀음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가 지난 지방자치선거운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을 누르고 이긴 것을 자기의 《공로》인듯 이 떠들고있다. 다 아느냐와 같이 윤석열은 취임 20여일만에 진행된 이번 지방자치선거운결과에 《국정》운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보고 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선거 전 기간을 극도의 불안과 초조 속에 보내다가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선거결과가 나오자마자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효과》 덕이라며 자기의 《공로》로 광고해나섰다.

이것이야말로 민심은 물론 보수세력내부에서까지 날로 높아가는 반윤석열기운을 녹차하고 정치적몸값을 올려보려는 해피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에서

이 되어 궁지에 빠진 윤석열이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지방자치선거운에서의 《윤석열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할 일도 찾아본다느니, 당선된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겠다느니 하고있는가 하면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세력의 인물들을 내세워 《교육의 보수화》를 강행할 기도로 팔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로 지방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 조건에서 중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것이 남조선민심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갈수록 치열해지는 추악한 권력싸움

남조선의 《국민의힘》이 지방자치선거운결과 그 무슨 《혁신》놀음을 벌여놓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내온다 어쩡다 하며 《당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 계파들을 견제함으로써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이 《혁신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당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 계파들을 견제함으로써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이 《혁신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당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 계파들을 견제함으로써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이 《혁신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당개혁위원회》를 내온다는 말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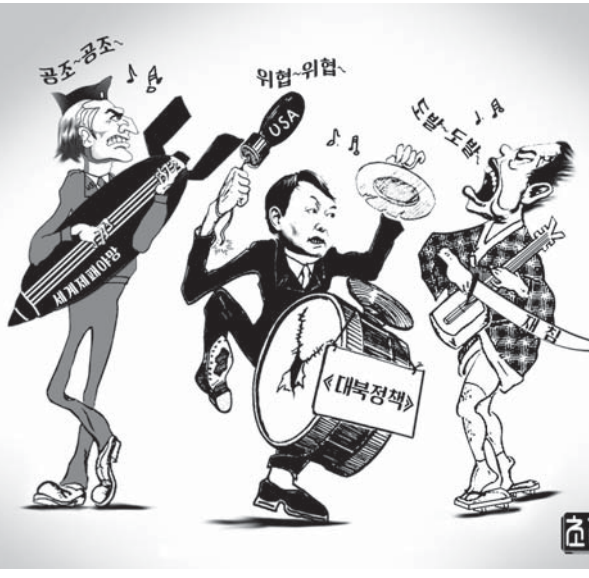
여성혐오세력의 낮간지러운 추태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행정부에 여성가족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여성혐오세력의 추태가 잇따르고있다. 《국민의힘》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할 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물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서풍짜리악단》



남조선의 윤석열 《정부》가 그 무슨 《당당한 외교》, 《전략적외교》를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외교》동반자 관계, 《균형외교》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의 교감에 걸맞은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당당한 외교》, 《전략적외교》를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외교》동반자 관계, 《균형외교》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의 교감에 걸맞은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당당한 외교》, 《전략적외교》를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외교》동반자 관계, 《균형외교》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의 교감에 걸맞은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당당한 외교》, 《전략적외교》를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외교》동반자 관계, 《균형외교》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의 교감에 걸맞은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당당한 외교》, 《전략적외교》를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외교》동반자 관계, 《균형외교》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의 교감에 걸맞은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당당한 외교》, 《전략적외교》를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외교》동반자 관계, 《균형외교》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에 기초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의 교감에 걸맞은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본사기자 김정혁